

중국의 건설시장동향과 주요 추진 프로젝트 현황

중국 수교 1년을 경과하면서 민간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며, 건설부문 역시 진출 가능성 여부를 모색하고 있는 등 상호 경제교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지에서는 월간 건설에 전재되었던 林成票(건설국제부 협력과)의 글을 게재한다.

1. 경제개황

중국은 90년대 아시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한편 오는 97년 홍콩 인수와 함께 최근 대만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강력한 '아시아의 새로운 용'에서 '세계의 용'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아시아 대륙의 동부와 태평양의 서부 가장자리에 위치한 중국은 국토면적이 960만평킬로미터로 지구전체 면적의 6.5%를 차지하면서 구소련 및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나라로 국토가 넓은만큼 기후도 복잡다양하다. 또한 중국은 세계 3대 자원부국으로 모든 자원이 자급자족이 가능할 정도의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석탄은 1조5천억톤 이상의 매장량이 있다. 석유와 철광석의 매장량도 풍부하나 그동안 산업화의 부진으로 전력, 통신, 용수와 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전반적으로 극히 미비되어 있어 중국의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GNP는 약 380달러로 인도와 비슷하고 인도네시아의 절반, 태국의 4분의1에 불과하지만 거대한 경제자원인 12억이라는 인구를 갖고 있어 총 GNP 규모는 1조4천억달러 내지

중국의 제8차5개년계획과 10개년계획의
주요목표

구분	단위	1990년 실적	1991년 실적	1995년(목표)	2000년(목표)
인구	만명	114,333	115,823	121,600	129,456
(증가율)	(%)	(1.4)	(1.15)	(1991-2000년의 연평균 증가율 1.25%)	
G N P	억원	17,686	19,580	23,250	31,000
(연평균성장률)	(%)	(5.2)	(7.0)	(1995-1995년 6%)	
국민수입	억원	14,300	-	18,250	-
(실질증가율)	(%)	(1.4)	-	(1991-2000년 5%)	
농업총생산액	억원	7,662	8,008	8,780	-
(실질증가율)	(%)	(7.6)	(3.0)	(1991-2000년 5%)	
공업총생산액	억원	23,924	28,225	32,700	46,049
(실질증가율)	(%)	(7.8)	(14.2)	(1991-2000년 6.8%)	

자료: '인민일보'(해외판), 1991년 1월29일 및 1992년 2월29일
자

출처: 중국편람(1992), 대외경제정책연구소(KIET)

1조5천억달러에 이르러 미국 총생산의 1/4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IMF(국제통화기금)의 분석에 따르면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때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등장하고 있어 21세기에는 세계경제 패권을 쥐어잡을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지난 90년 12월 30일 중국공산당 7차 중전회에서 21세기를 대비한 국가건설발전목표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국민경제, 사회발전 10개년계획과」과 「제8차5개년계획」을 채택하여 금년 1월부터 금세기말까지 80년의 GNP 4배를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

특히 2000년대 산업정책 목표중 기간산업과 인프라스트럭처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외자유치 등 적절한 투자정책을 채택하여 발전소, 유전, 탄광, 도로, 항만,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건설업은 주택산업의 발전과 결부시켜 경제건설과 도시,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전자재 산업을 집중육성할 계획이다.

1989년에서 1991년까지 3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5.3%에 불과했던 중국은 지난해 전세계가 경기침체에서 허덕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12.8%라는 경이로운 증가로 세계에서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동아시아 경제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성장추세는 중국이 인프라부문에 고정투자를 대폭 늘림으로서 금년에도 중국정부에서는 8%의 성장을 예견하고 있으나, 세계경제 전문가들은 13%의 높은 성장률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말까지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9%가 증가한 1조2천6백억원(2천2백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부문은 외국투자유치에 힘입어 생산량이 전년동기에 비해 25.1%나 늘어난 공업부문이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최근 지나친 성장 드라이브 정책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과열 조짐이 보이기 시

중국의 개혁·개방 추진이후
경제규모 확대추이

구 분	단 위	1978	1992	증가율(배)	
GDP	억원	3,558	23,938	6.67	
1인당 국민소득	원	315	*1,392	4.42	
소매 판매 총액	억달러	1,558.6	10,894	6.99	
교역	수출	억달러	97.5	850	8.72
	수입	억달러	108.9	806	7.46
재정	수입	억원	1,121	3,972	3.54
	지출	억원	1,111	4,875	4.39

자료: 중국통계연감. *는 91년 기준
출처: 한국경제신문(93년 6월 30일자)

작해 금년 상반기중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국적으로 평균 12%나 상승하고 무역수지도 악화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인플레이 진정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부동산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개발지역의 토지관리를 강화하여 통제하고 경제특구 83%를 폐쇄하는 등 경기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 건설경기 전망

중국은 현대화 추진을 위한 외국자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1980년 동남부 주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연안도시를 대외에 개방하여 외국인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오고 있어 도시개발과 기간산업 구축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건설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건설업계에서는 작년 8월 한·중 공식 수교 이후 양국 건설부장관이 지난 1월 건설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으로 국내의 우수 건설업체들이 중국시장 진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제2의 중동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연간 건설투자 시장규모는 약 1,0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국의 건설경기는 중국이 국가발전의 전기로 계획하고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2000년 북경올림픽 때까지 계속 활황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은 재작년부터 추진중인 제8차5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택 및 각종 사회

간접자본시설 건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대외 경제개방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건설을 비롯하여 중국 전역에 걸쳐 이례적인 건설붐이 일고 있다. 이미 중국은 외국건설업체들을 끌어 들여 노후화된 불량주택을 철거하여 현대식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신규 주택건설 및 기존도시의 주택재개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의 주택건설시장 진출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는 Anhui, Hubei, Hunan, Jiangxi, Sichuan과 Zhejiang 등 대도시와 경제특구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사무실, 호텔 및 리조트 시설건설과 관광, 위락단지 개발에 따른 건설프로젝트 발주도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3. 중국의 주요 건설프로젝트 개황

현재 세계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양자강 개발계획중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된 프로젝트이자 중국정부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삼협댐 건설공사(The Gorges dam project)이다. 이 댐의 공사입찰은 조만간 실시될 예정으로 중국이 17년동안 총사업비 110억달러를 투자하여 건설할 수력댐으로 전력생산이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인 브라질의 아이타이푸댐보다 40% 많은 1,700만 Kwh로 현재 발주에 따른 제반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중국은 이외에도 금세기말까지 전력생산설비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20년간 통신시설 분야에만도 400억달러 이상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며, 각 지역의 개발계획에 따라 중국의 건설시장은 명실공히 21세기 세계최대의 건설시장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가. 양자강 경제권건설 개발계획

최근 중국 국가계획 위원회(The State Planning Commission)에서는 양자강 연안의 28개 도시 8개지구를 하나로 묶을 계획으로 금세기말까지 국내자본 1조원(미화 1,750억 달러)과 1백억달러

〈중국 양자강 유역 종합개발계획 개요〉

- 총개발 사업비 : 1조원(1천7백50억달러)
- 개발 완료 목표 : 2000년
- 주요 프로젝트 내용
 - 삼협댐 건설(공기 : 약 17년), 수력발전소 (68만 Kw영량 26기)
 - 상해 정유공장, 국제공항건설
 - 상해-북경간 고속도로, 고속철도건설등 100여건
- 양자강 개발지구
 - 상해 포동에서 사천 중도까지의 28개 주요 도시
 - 면적 329,000 제곱킬로미터, 인구 1억 7천만명
 - 중국 GNP의 5분의 1을 점유

이상의 외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양자강 유역개발계획을 중국의 국가경제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공식 발표함으로써, 외국 건설업체들에게 투자 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투자계획에 따르면 상해 포동에서 양자강을 따라 뻗어 있는 사주성 중경까지의 광범위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절강성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상해 포동 신규개발지역에 건설할 국제공항 및 상해 정유시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Qinshan 핵발전소 2기확장공사 그리고 북경-상해간 고속전철공사를 비롯하여 양자강 중상류 삼두평에 높이 185m, 길이 1,983m, 저수면적 74,100에 에이커에 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수력발전댐이 될 삼협댐 건설공사(공사비 약 110억달러) 등 100여개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삼협댐 공사를 국제입찰로 실시될 예정으로 지난 8. 31일 1차로 입찰절차를 공개한 바 있으며 현재 중국 수리부에서 설계중에 있고 2.3년후에 공식국제입찰될 예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건설이동 프로젝트에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중국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전당 2만3천Km의 양자강은 사천, 호남, 호북, 귀주, 강서, 강소, 상해 및 절강 등 중국의 주요 성과 시를 포함하고 있는 중국의 최대지역으로 이 지역의 개발사업에는 외자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국가관리 통신시설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자의 진출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양자강 경제권 건설계획은 금세기 최대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78년부터 남부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상하고 야심적으로 추진할 양자강유역 개발사업은 '92년 개최된 제14차 중국인민대표대회에서 건설,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 4개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자강 유역을 개발하여 이들 산업을 육성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구체화 되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측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양자강 종합개발계획(Yangtze Development Plant)이 유치 예정인 2000년 중국 북경올림픽에 맞추어 금세기말 이전에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총 투자규모 1,750억달러중 약 10분의 1 가량인 192억달러를 중앙정부측에서 투자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1백억달러 정도를 외국인투자자로 유치한다는 계획아래 최근 양자강 개발방식을 BOT 방식의 투자도 허용키로 결정하였다.

BOT(Build Operate & Transfer)방식은 시공 건설업체가 시설물을 건설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면서 건설대금 및 이윤을 회수하고 약정기간 만료후 시설물을 발주자측에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중국은 외국인 투자업체에게 양자강 종합 개발사업중 발전소, 부두, 도로, 철도, 통신설비 건설사업에 BOT 투자방식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시설물 건설후 운용기간도 15년을 부여키로 한 바 있다.

나. 상해포동 신규 개발계획

만리장성 건설 이래 세계최대의 토목공사중 하나가 될 상해 포동지구 개발계획도 21세기 중국개발개혁의 성패가 달려있는 그야말로 중

국의 사활을 건 대역사로 평가된다. 총 350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을 개발하게 될 상해의 포동지구개발 프로젝트는 메가톤급 프로젝트로 상해 시를 관류하는 황포강의 동쪽 포동지역과 구시가지지역인 포서를 결합하여 새로운 市지역을 확장 조성하는 대규모사업이다.

중국의 개발 중심지가 지난 80년대 홍콩, 마카오와의 접경지역인 주장 이남에서 90년대 들어 양자강유역 일대로 옮겨지고 있는 가운데 추진 중인 포동신구 개발계획은 각 주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및 간선도로와 순환 도로를 건설하고 늘어나는 교역량에 대비한 항만시설 확장과 발전소건설 그리고 상해 제2국제공항건설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금세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00년 이후 20-30년간 이 지역을 보세가공을 할 수 있는 Waigaoqiao자유무역지대(10평방Km)와 금융, 무역, 상업, 부동산 등 상업중심지가 들어설 Lujiazui 금융무역지구(6.8평방Km), 기초공업을 유치할 Jingiao수출가공지역(8.9평방Km)과 Zhangjiang 하이테크 과학연구단지(17평방Km)등 4개권역으로 나누어 "제2의 홍콩"으로 건설한다는 야심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90년 4월 아시아의 새로운 국제금융 무역중심지로 포동지역을 개발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이 지역을 2010년까지 국제적인 금융, 무역의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외국의 자금과 첨단기술을 유치한뒤 남경, 무한 등 양자강 유역의 내륙지방으로 개방개혁의 성과를 파급시키는 전진기지로 개발키로 하고 '91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반시설건설에 착수하고 있어 세계인의 주목과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상해 포동지구개발 총 예상투자액은 기반시설공사 비용만 1백억달러 규모이며 8차5개년계획이 끝나는 '95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부두, 교량, 발전소, 전신·전화시설 등 10개 주요기반시설공사(basic structures)를 모두 마친 뒤 2000년까지 외국기업의



중국 심양공조기 4층의 공조리 조립 광경

유치를 마칠 계획으로 있다.

'93년 상반기 현재 미국, 일본 등 794개 외국 기업체들이 2천건 이상되는 포동지구개발 프로젝트에 46억달러의 투자를 이미 결정했으며, 중국내 410개 기업들도 20억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약정하고 공단과 상가등의 입주계약을 활발히 체결하고 있다.

이미 작년에 포동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장 24.5 킬로미터의 Yanggao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착공후 300일만에 완공되었고 Nanpu교와 포동 가스플랜트 건설공사도 완료되었으며 세계최장인 양포대교도 금년 상반기에 상판 연결공사가 마무리 되어 10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상해시와 포동개발지구를 연결하는 동양최대의 사장교 횡포대교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1만톤급 선박정박을 위한 Waigaoqiao 항구개발 프로젝트도 금년 하반기면 완공될 예정이다. 또 중국은 포동지구에 88층, 340m 높이의 아시아 최고층 빌딩을 건설할 계획이며 향후 5년내에 완공목표로 추진중이다.

4. 발전설비 프로젝트 및 기타 기간산업시설 개발계획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경제개방과 함께 미국, 일본 등 서방선진국들의 기술의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시작한 중국은 공업기반시설 및 기간산업시설 확충계획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져 지난해는 경제성장률이 12.8%대를 기록하고 공업생산도 연 20%대의 초고속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고도성장을 뒷받침할 에너지가 절대부족 위기에 처해 있어 경제계획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도 중국의 전력생산 증가율은 작년 중국의 국민총생산 성장률보다 2.1% 부족한 10.7%에 그쳤고, 내년까지도 7.3% 증가에 그친 1천300백만kW 규모의 전력예상 생산능력밖에 못되어 향후 연평균 10%의 GNP 성장을 목표로 할 때, 전체 전력생산능력이 산업성장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향후 전력수요량은 중국

의 경제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심각한 전력수급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정부에서는 현재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 완수하고 발전용량 강화를 위해 전력사업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최근 전면 개방기로 하였다.

가. 발전설비 프로젝트

중국 남부 광둥성 제2 원자력발전소에 100만 kW급 원자로 2기가 건설될 계획으로 현재 건설후보지 모색과 함께 해외의 주요 원전 건설 회사들을 상대로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도 중국은 핵발전소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의 국제전력개발공사(Huaneng International Power Development Corp.)에서 70억1천만달러를 투자하여 총 800에서 천2백만kW의 전력생산용량을 갖춘 화력발전소를 2000년까지 해안 지역에 건설키 위해 외국합작사를 현재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국핵발전소공사(China-National Nuclear Corp.)도 해안 전력공사와 공동으로 공사규모 3억7천2백만달러를 주식 발행이나 외자를 도입하여 공사재원을 마련, 중국 남단섬의 경제특구인 해남성에 35만kW의 핵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의 연간 발전용량은 1억6천5백만 kW로 1997년까지 연간 7천5백만에서 8천5백만 kW의 전력생산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2000년까지 전력난 해결을 위한 발전소 건설비용만도 1993년도 금액으로 최소한 5백억원(약 87억달러)의 투자자금이 필요하지만 국내재원 조달능력은 기껏해야 80%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급속한 경제개발에 따라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전력시장의 대외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에서는 세계 최대규모의 삼협댐 건설계획을 본격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초에는 이봉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프로젝트 정책집행기구인 건설감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도 전력부문예산에 88억달러를 책정하였다.

한편, 중국은 화력발전소 건설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광둥성지역 등에 총10여개의 화력발전소를 건설기로 계획하고 이미 일본건설업체들에게 공사자금조달을 비롯한 관련 첨단기술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 이에 일본의 7개 대형 건설업체들은 금년 6월초 사업참여의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환경문제를 고려한 대규모 첨단 화력발전소 건설에 조인트벤처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광둥성 지역에는 총공사비 10억달러가 소요될 2천4백MW 규모의 대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 동남부 지역은 물론 향후 홍콩까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2억달러의 차관을 공여받아 공사에 착수, 1999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절강성 지역에는 발전용량 1천8백MW에 총공사비 약 5억4천7백30만달러가 소요될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최근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3억달러의 차관을 5년거치 20년상환에 연리 7.43%의 조건으로 제공받아 본격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은 1995년까지 전력량을 8,100만Kwh, 2000년에는 1조1,000억kwh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현재의 전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분간은 화력발전에 의존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건설 중인 대아만 원자력발전소는 중국의 전력사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삼협댐의 건설등은 양자강 중류지역의 홍수방지는 물론 전력생산의 증대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나라 한국전력은 최근 중국 길림성 연길에 10만kW급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기로 중국측과 합의한 바 있다. 이 발전소건설소요자금 2억달러는 중국측의 요청대로 우리의 대외 경제협력기금(EDCF)이나 상업차관으로 조달될 것으로 알려져 우리건설업체들이 중국 발전설비 프로젝트 분야에의 향후 진출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